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호 [루게 제24781호] 주제 104 (2015)년 1월 3일 (토요일)

## 사설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우리 당과 조국역사에 빛나는 승리의 해로 아로새겨지게 될 2015년의 장엄한 총진군이 시작되었다. 우리 당을 진군하는 장엄한 축포성으로 새해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내 나라, 내 조국강산에 희망찬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이 차넘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해에 즈음하여 력사적인 신년사를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지난 해에 이룩한 자랑스러운 성과를 총화하고 올해에 수행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조성된 정세와 환경에 주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새로운 변용기에 들어선 선군조선의 비약과 전진의 기상을 더욱 고조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 지침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전진축전인 투쟁의 양식을 밝은 전망을 펼쳐준 조국통일의 대장이다. 새해의 휘황한 전투적 광명을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으며 그들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세계사의 궁지와 신심들이 뜻깊은 새해에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는 조국해방 일흔흔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흔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장기의 성스러운 기록에 새겨안고 지구촌의 기간 불멸의 서사시를 창조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와 불분류의 헌신적노력으로 의해 식민지악곡이었던 우리 조국은 그 누구도 감히 속물수 없고 견딜수 없는 세계적 인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고 우리 인민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 존엄높고 보람찬 삶을 누리게 되었다. 세상에는 우리 당, 우리 공화국과 같이 창건된 첫 시기부터 오랜 세월 결합되어 전체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자기 발전의 가장 빛나는 력사를 수놓아온 당과 국가가 없다.

조국해방 일흔흔과 당창건 일흔흔은 자주시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개척하고 전진시켜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의 대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과시하는 중대한 정치적사건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의의깊은 명철들이 걸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으며 그들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세계사의 궁지와 신심들이 뜻깊은 새해에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김정일조선의 대대성과 무궁번영의 명맥을 이어주는 보물창고이며 최후승리의 강령적노력이다.

우리는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온갖 도전과 시련을 맞받아놓고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흔을 혁명적대업사로 빛내어나가야 한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기를 보다 큰 승리와 변혁으로 수놓아갈수 있게 하는 창조적 무기이다. 지난해에 우리는 위대한 당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면적부흥의 새시대를 활짝 열어놓았다.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진 지난해의 모든 성과들은 백두의 기상과 정신으로 살며 투쟁해나가는 과정에 이룩된 것이다. 력사와 현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굴복한 나라와 민족이 당하는 수난과 고통이 얼마나 비참한것인가를 이미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백두의 칼바람은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적진심을 더 굳게 버려주고 모든 기력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따스한 바람이지만 원수들에게는 돌풍이 되어 철수를 내리는 예리한 바람이다. 죽어도 혁명적진심을 버리지 말라,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는 견결하고 투지비하라, 이것이 백두의 구슬들을 찾는 우리 인민군인들과 근로자들, 청소년들이 하늘땅을 휩쓸고 칼바람을 맞으면서 피와 살로 체득한 반제국주의 투쟁의 철리이다. 백두의 칼바람을 받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세력들의 가져오는 침략전쟁보다도 더 위대한 대업을 완수하고, 오늘과 내일을 가장 충고하고 값진 채물, 필승의 정점은 바로 백두의 혁명정신이다. 천만군이 우리 혁명정신에서 그 생활력이 넘칠없이 활짝 피어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과감한 창조적투쟁을 펼쳐나갈 때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대비약적혁신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천하제일강국, 백두산대국의 자주적존엄과 위용이 세계를 진감하게 될것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온갖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인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의 결성적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시는바와 같이 최후승리의 의의 보이며 자주와 정의의 성세인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조선민대에서는 긴장적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전쟁위험은 더욱 커졌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가 실현될수 없게 되자 비열한 《인권》소동에 매달리고있다. 어떤 구실을 불어이라도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기어코 말살하고 우리의 인민의 삶의 보금자리를 강탈하려는 날강도무리들과의 대결전에서는 한발자국의 양보는 곧 죽음으로 이어진다. 력사와 현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굴복한 나라와 민족이 당하는 수난과 고통이 얼마나 비참한것인가를 이미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백두의 칼바람은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적진심을 더 굳게 버려주고 모든 기력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따스한 바람이지만 원수들에게는 돌풍이 되어 철수를 내리는 예리한 바람이다. 죽어도 혁명적진심을 버리지 말라,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는 견결하고 투지비하라, 이것이 백두의 구슬들을 찾는 우리 인민군인들과 근로자들, 청소년들이 하늘땅을 휩쓸고 칼바람을 맞으면서 피와 살로 체득한 반제국주의 투쟁의 철리이다. 백두의 칼바람을 받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세력들의 가져오는 침략전쟁보다도 더 위대한 대업을 완수하고, 오늘과 내일을 가장 충고하고 값진 채물, 필승의 정점은 바로 백두의 혁명정신이다. 천만군이 우리 혁명정신에서 그 생활력이 넘칠없이 활짝 피어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과감한 창조적투쟁을 펼쳐나갈 때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대비약적혁신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천하제일강국, 백두산대국의 자주적존엄과 위용이 세계를 진감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지난 해에 이룩한 자랑스러운 성과를 총화하고 올해에 수행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조성된 정세와 환경에 주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새로운 변용기에 들어선 선군조선의 비약과 전진의 기상을 더욱 고조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 지침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전진축전인 투쟁의 양식을 밝은 전망을 펼쳐준 조국통일의 대장이다. 새해의 휘황한 전투적 광명을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으며 그들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세계사의 궁지와 신심들이 뜻깊은 새해에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장기의 성스러운 기록에 새겨안고 지구촌의 기간 불멸의 서사시를 창조하여왔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온갖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인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의 결성적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시는바와 같이 최후승리의 의의 보이며 자주와 정의의 성세인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조선민대에서는 긴장적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전쟁위험은 더욱 커졌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가 실현될수 없게 되자 비열한 《인권》소동에 매달리고있다. 어떤 구실을 불어이라도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기어코 말살하고 우리의 인민의 삶의 보금자리를 강탈하려는 날강도무리들과의 대결전에서는 한발자국의 양보는 곧 죽음으로 이어진다. 력사와 현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굴복한 나라와 민족이 당하는 수난과 고통이 얼마나 비참한것인가를 이미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백두의 칼바람은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적진심을 더 굳게 버려주고 모든 기력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따스한 바람이지만 원수들에게는 돌풍이 되어 철수를 내리는 예리한 바람이다. 죽어도 혁명적진심을 버리지 말라,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는 견결하고 투지비하라, 이것이 백두의 구슬들을 찾는 우리 인민군인들과 근로자들, 청소년들이 하늘땅을 휩쓸고 칼바람을 맞으면서 피와 살로 체득한 반제국주의 투쟁의 철리이다. 백두의 칼바람을 받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세력들의 가져오는 침략전쟁보다도 더 위대한 대업을 완수하고, 오늘과 내일을 가장 충고하고 값진 채물, 필승의 정점은 바로 백두의 혁명정신이다. 천만군이 우리 혁명정신에서 그 생활력이 넘칠없이 활짝 피어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과감한 창조적투쟁을 펼쳐나갈 때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대비약적혁신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천하제일강국, 백두산대국의 자주적존엄과 위용이 세계를 진감하게 될것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온갖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인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의 결성적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시는바와 같이 최후승리의 의의 보이며 자주와 정의의 성세인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조선민대에서는 긴장적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전쟁위험은 더욱 커졌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가 실현될수 없게 되자 비열한 《인권》소동에 매달리고있다. 어떤 구실을 불어이라도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기어코 말살하고 우리의 인민의 삶의 보금자리를 강탈하려는 날강도무리들과의 대결전에서는 한발자국의 양보는 곧 죽음으로 이어진다. 력사와 현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굴복한 나라와 민족이 당하는 수난과 고통이 얼마나 비참한것인가를 이미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백두의 칼바람은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적진심을 더 굳게 버려주고 모든 기력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따스한 바람이지만 원수들에게는 돌풍이 되어 철수를 내리는 예리한 바람이다. 죽어도 혁명적진심을 버리지 말라,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는 견결하고 투지비하라, 이것이 백두의 구슬들을 찾는 우리 인민군인들과 근로자들, 청소년들이 하늘땅을 휩쓸고 칼바람을 맞으면서 피와 살로 체득한 반제국주의 투쟁의 철리이다. 백두의 칼바람을 받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세력들의 가져오는 침략전쟁보다도 더 위대한 대업을 완수하고, 오늘과 내일을 가장 충고하고 값진 채물, 필승의 정점은 바로 백두의 혁명정신이다. 천만군이 우리 혁명정신에서 그 생활력이 넘칠없이 활짝 피어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과감한 창조적투쟁을 펼쳐나갈 때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대비약적혁신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천하제일강국, 백두산대국의 자주적존엄과 위용이 세계를 진감하게 될것이다.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장기의 성스러운 기록에 새겨안고 지구촌의 기간 불멸의 서사시를 창조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와 불분류의 헌신적노력으로 의해 식민지악곡이었던 우리 조국은 그 누구도 감히 속물수 없고 견딜수 없는 세계적 인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고 우리 인민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 존엄높고 보람찬 삶을 누리게 되었다. 세상에는 우리 당, 우리 공화국과 같이 창건된 첫 시기부터 오랜 세월 결합되어 전체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자기 발전의 가장 빛나는 력사를 수놓아온 당과 국가가 없다.

#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불멸의 가치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에 접한 각계의 반향

### 전후복구건설시기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선군청년전위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나가겠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의 구슬진어를 새겨볼수 없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국토건설사상과 령도업적을 받들어 온 나라를 수렴하, 원림화, 파수원화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가슴깊이 새겨진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것 처럼 단련,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물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모든 부문들에서 수렴화, 원림화, 파수원화를 위한 사

업을 밀고나가며 평양시와 도, 시, 군소재지, 일터와 마을들을 보다 문명하게 꾸리고 정성유지, 정성관리하는데,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시어준 국토관리사업에서의 총적방향이요 과업이다.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산이다. 그러나 지난 기간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산림애호》, 《청년림》, 《소년림》이라고 써 붙인 산물가운데 나무가 거의 없는 산들이 적지 않다. 일감이 방해하다. 벌거벗다싶이 한 산물을 그대로 두고 떠는 물러설 길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전후 온 나라가 떨쳐나 제

미를 털고 일머서던 그날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진으로 간주하고 전단,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야 할 시기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중앙양묘장이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줄기의 나무모생산기에서부터 전진되는 물론 모든 도, 시, 군들에도 양묘장들이 꾸려져있다. 그리고 거리와 일터, 마을들을 문명하게 꾸리며 강하천정리, 도로기술개건사업을 위한 령도도 그르다.

문제는 우리 일꾼들에게 달려 있다. 일꾼들이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하면서

사회주의애국심, 모범산림공정호쟁위운동과 같은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가까운 앞날에 온 나라를 수렴화, 원림화, 파수원화할수 있다.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려면 우리 성일군들을 이 국토관리사업에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적성과를 창조해나가겠다. 특히 계절에 관계없이 나무심는 방법을 완성하고 현지에 나가 무거운 짐을 지고 발이 닳도록 뛰면서 대중을 이끄는 총공격전의 기수, 전위투사가 되겠다.

국도원장보호상 김경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크나큰 격경과 흥분속에 받아안은 우리 수백만 청소년들의 가슴속에는 뜻깊은 울헤에 불타는 총성과 영웅적의훈으로 선군청년전위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나갈수 있는 열의로 새해가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새겨들고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올해 총공격전의 승리를 확정적이라는 신심과 락관이 가슴에 차넘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청년들은 당을 따라 끝까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총진군대오의 최후승리이다.》

우리는 청년동맹안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데 동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여 청년동맹을 위한 대원수님들의 청년

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추전장을 멋있게 들어서도록 하겠다.

특히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과 청년운동사적관건설, 전국 소년단아영소, 학생소년회관들에 대한 개건보수를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훌륭히 완성함으로써 불가등을 모르는 선군청년전위의 기상과 본래를 남김없이 보여주고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것처럼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물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청소년들이 애국헌신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혁명의 지휘원들이 일꾼들이 지닌 위치와 임무를 깊이 명심하고 청년동맹일꾼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색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전방향을 일으켜 그들이 올해의 총공격전의 맨 앞선에서 청년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기수, 전위투사가 되도록 하겠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는 젊음으로 약속하는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힘이며 조상청년운동의 생명선이다. 우리는 청년동맹을 우리 당의 믿음직한 최후대, 유력부대로 내세워주며 청년운동과 승리와 영광의 항길로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뜻깊은 울헤에 선군청년전위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나감으로써 영광스러운 10월의 대추전장에 김일성사상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불멸의 불꽃을 떨쳐내겠다. 김일성사상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불멸의 불꽃을 떨쳐내겠다.

김일성사상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불멸의 불꽃을 떨쳐내겠다. 김일성사상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불멸의 불꽃을 떨쳐내겠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결의로 넘쳐있는 수송전사들 분사가 리전 명 찍음

### 결사관철의 전통 증산성으로 빛내이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되풀이하는 심정마다에 받아안은 우리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일꾼들과 로동계급의 가슴속에는 지금 새로운 신심과 투쟁열로 새해가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래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는 백두산철쇄일꾼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어느 단위보다 뜨겁게 깃들여있다.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끊임없이 찾고 또 찾으시며 나라의 위력한 화학비료생산기지로 전변시켜주시었다. 1990년대 초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생산공정의 대형화, 현대화 공사를 몸소 현지에 서신두지 회해주시는 등 위대한 수령님이시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발전해공정과 가스화공정을 새로 일떠세워주신 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오늘도 기업소의 구대길을 걸을 때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헌신의 자욱이 뜨겁게 언더와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한다.

한평생 나라의 농업생산을 두고 마음쓰시며 우리 련합기업소를 찾고 또 찾으시며 현대적인 비료생산기지로 전변시켜주시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우리는 당의 정성속에 심비려 증대보수를 짧은 기간에 끝낸 기세로 지난해에 이어 새 시비료비료생산계획을 무조건 넘쳐 수행하였다. 그 길이 련합기업소에 갖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는 길이다. 우리는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확고히 견지하고 대추전장에 걸어들어 그들의 불멸의 령도를 깊이 명심하고 청년동맹일꾼들의 사업기풍과 결사관철의 전통 증산성으로 빛내이리

한평생 나라의 농업생산을 두고 마음쓰시며 우리 련합기업소를 찾고 또 찾으시며 현대적인 비료생산기지로 전변시켜주시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우리는 당의 정성속에 심비려 증대보수를 짧은 기간에 끝낸 기세로 지난해에 이어 새 시비료비료생산계획을 무조건 넘쳐 수행하였다. 그 길이 련합기업소에 갖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는 길이다. 우리는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확고히 견지하고 대추전장에 걸어들어 그들의 불멸의 령도를 깊이 명심하고 청년동맹일꾼들의 사업기풍과 결사관철의 전통 증산성으로 빛내이리





#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 세차게 내려친다

##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새해전투에 떨쳐나선 로동계급

### 당에서 번개를 치면 우리로 화답하며

공격에서 보다 큰 공격적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더욱 버려진 드세한 공격적인 기상이 여기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 세차게 내려친다.

우리는 격전장을 방불케 하는 전투현장의 박한 숨결을 깨부르느라 새해전투에 나선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소식을 전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등대마냥 울헤 달려나갈 투쟁의 앞길을 뚜렷이 비추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는 공직의 화학공업기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무한한 격정과 환희의 파도가 세차게 일렁인다.

어제 그렇지 않았는가. 무연탄가스화공정의 조업이래 지난해 주체비료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남흥로동계급이다. 그 기세로 새 시비엔도비료생산 전투에 진입하여 얼마 안되는 사이에 많은 량의 주체비료를 생산한 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철칙의 신념에 넘쳐 공격에서 보다 큰 공격전에 진입하였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우리가 앞장에서 열어야 하겠습니다.》

### 남흥청년 화학연합기업소에서

《겨울철의 불리한 수송조건으로 얼어붙은 석탄을 꺼내기 위해 스스로 펼쳐나선 로동자들입니다. 교대를 끝냈으니 휴식하라고 만류해도 아랑곳없습니다.》 잘 선별된 석탄이 콘베어를 타고 힘없이 흘러가는 속에 봉탄생 산전투장이 더욱 세차게 불는다. 익숙된 솜씨로 압출기와 건조로를 조작하는 로동자들, 가스발생공정을 지켜선 로동자들의 구리빛얼굴마다에도 땀이 흐르지만 열정을 모른다. **《당중앙을 더 높은 비료생산성으로!》, 《주체비료목표로 적대세력들의 제재령을 쳐갈기자》 등 곳곳에 날보는 격동적인 글발들도 한눈에 안겨온다.**

작업복차림으로 로동자들과 함께 어울려 일손을 다그치는 연합기업소의 일군들, 같은 량의 석탄으로 한의 비료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애쓰는 기술자들과 축희의 꽃다발을 들고 현장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작업하는 로동자들

### 필승의 신심드높이 증산돌격 앞으로!

####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에서

력사의 땅 땅당지구에 자리잡은 공직의 세멘트생산기지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지닌 애국충정의 불길이 활화산마냥 강렬하게 분출하고 있다.

뜻깊은 새해의 첫 아침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원수님의 휘황찬란한 새해의 날이 안은 상원의 로동계급이 필승의 신심과 천백배의 용기를 가다듬으며 총진군의 앞장에서 새로운 비약의 열풍을 거세차게 일으키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주체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어야 하겠습니다.》** 각종 부인료를 땀방울 생산해내는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새로 개건된 1호생산계획의 만부하를 보장하던 기술자, 기능공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으며 신장의 피를 더욱 펴낼 뉘었다.

인민들에게 열렬한 새해인사를 보내시며 온 나라 가정들에 따뜻한 정이 넘치고 커이우 우리 어린

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시는 자애로운 어머니를 우러러 크나큰 격정에 넘쳐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울리고 또 울린 이들도이다. 희망찬 새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주체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어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인 말씀을 배에 새긴 이들도이다. 연합기업소당원회의 지도력에 이 곳 일군들은 자기 단위를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더욱 고조시키는 생산기지로 전면시킬 열의밑에 전투조직과 지휘를 박

력있고 참신하게 진행해나가고 있다. 이들은 연료와 원료보장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새로 개건한 1호생산계획과 광석생산기지를 비롯하여 모든 생산공정을 만가동, 만부하로 돌리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치면서 새해 첫 교대부터 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세멘트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최고생산년도를수준을 또다시 강행돌파하기 위한 투쟁에 불소성했다. 1호소성로와 2호소성로 만가동, 만부하! 높이 세운 지난해 세멘트생산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는데 크게 기여한 소성장이 시작부터 혁신의 앞장에 섰다.

대건설전투의 승배가 우리에게 달려있다. 자랑찬 세멘트증산돌격의 불길로 건설의 번개처럼 일군들은 로동계급은 최대의 민족, 최고의 실적으로 통상훈을 불러 주체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일 일념으로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새로운 창조와 비약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 올해 첫 출선 진행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

북방의 철의 기차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필승의 신심과 락판에 넘쳐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하였다.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펼쳐진 전진하는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1월 0시 새해의 첫 출선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대형용광로에서 주조용 쇠물이 사용되며 쏟아져 나오는 용광로 용해공정, 현장에 모인 도와 기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모두가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연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

요구대로 하였으며 앞선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용해시간을 획일 단축하였다.

소형 1, 2직장, 정광공급1직장을 비롯한 편편단위 로동계급은 높은 책임성을 지니고 원료와 연료를 제때에 보장하였다.

김책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역사적인 올해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발전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할 한마음으로 철강증산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로 빛내일 열의에 넘쳐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개천지구관할연합기업소 조양탄광에서- 본사기자 김 정 명 찍음

### 기적소리며 조국의 발전을 위하여

새해다. 눈부신 승리의 속도로 밝아온 우리의 2015년이다. 조선로동당창건 70주년 대축전장을 향하여! 당은 또다시 새로운 전장을 피흘을 이었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해 필요로 여기는 우리들은 비장한 결의로 총만되어있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이여, 비료는 걱정하지 말고 올해 중요한 작황을 안아오라.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무한한 환희와 격정에 받아안는 우리들은 비장한 결의로 총만되어있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이여, 비료는 걱정하지 말고 올해 중요한 작황을 안아오라.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우리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과 직결된 공직의 화학공업기지를 앞세우며 로동계급의 투쟁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울헤전투를 위한 전진군에 나선 조선로동계급의 역할 같은 기상을 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성삼**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새해의 투쟁에 떨쳐나선 로동계급

### 평양철도국 수송전사들

처럼 가장 어려운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무겁게 내달려야 할 공격속도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이 한물 조국을 떠받드는 두 줄기 궤도가 되고 나라의 동맥으로 흐르는 피방울이 되리라! 앞장을 맨 일군들의 잡도리산하가 간단치 않다. 정초부터 산하 기관차대와 객차화대, 역들을 맡고나가 수송전사들을 불러일으키는 모습들에서 최후승리를 위한 공격적인 제1선함포에 몸을 내던 화전지휘관들의 일본새를 엿볼수 있다. 그들은 지금 있을수 있는 정황들을 앞잡아 산하에서 기관차와 화차들의 맞춤형 조직, 집중수송철도의 편성조직을 기동적으로 하고있다.

《우리의 기적, 우리의 자원이며, 우리의 힘! 화강암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을 발전시키고 철도운수를 추켜세워 모든 경제부문들이 활기를 띠고 뛰어들어라! **《우리의 기적, 우리의 힘!》**

《우리의 기적, 우리의 힘!》 신년의 리정표, 의지의 진군길이다. 화력탄을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부문에 필요한 물동수송, 200여km 구간의 용적메우실치공사, 수만m에 달하는 철길차갈과 수백의 철길정비를 더욱 짜고치고 철길상태에 따르는 합리적인 운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면서 새해의 화력탄수송에 떨쳐나선다.

《우리의 기적, 우리의 힘!》 신년의 리정표, 의지의 진군길이다. 화력탄을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부문에 필요한 물동수송, 200여km 구간의 용적메우실치공사, 수만m에 달하는 철길차갈과 수백의 철길정비를 더욱 짜고치고 철길상태에 따르는 합리적인 운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면서 새해의 화력탄수송에 떨쳐나선다.

《우리의 기적, 우리의 힘!》 신년의 리정표, 의지의 진군길이다. 화력탄을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부문에 필요한 물동수송, 200여km 구간의 용적메우실치공사, 수만m에 달하는 철길차갈과 수백의 철길정비를 더욱 짜고치고 철길상태에 따르는 합리적인 운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면서 새해의 화력탄수송에 떨쳐나선다.

《우리의 기적, 우리의 힘!》 신년의 리정표, 의지의 진군길이다. 화력탄을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부문에 필요한 물동수송, 200여km 구간의 용적메우실치공사, 수만m에 달하는 철길차갈과 수백의 철길정비를 더욱 짜고치고 철길상태에 따르는 합리적인 운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면서 새해의 화력탄수송에 떨쳐나선다.

### 활화산마냥 솟구치는 증산의 불길

우렁찬 음성들 들으며 눈시울을 적시었다. 인민들에게 새해의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며 온 나라 가정들에 따뜻한 정이 넘치고 커이우 우리 어린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시는 자애로운 어머니를 우러러 크나큰 격정에 넘쳐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울리고 또 울린 이들도이다.

《우리의 기적, 우리의 힘!》 신년의 리정표, 의지의 진군길이다. 화력탄을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부문에 필요한 물동수송, 200여km 구간의 용적메우실치공사, 수만m에 달하는 철길차갈과 수백의 철길정비를 더욱 짜고치고 철길상태에 따르는 합리적인 운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면서 새해의 화력탄수송에 떨쳐나선다.

《우리의 기적, 우리의 힘!》 신년의 리정표, 의지의 진군길이다. 화력탄을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부문에 필요한 물동수송, 200여km 구간의 용적메우실치공사, 수만m에 달하는 철길차갈과 수백의 철길정비를 더욱 짜고치고 철길상태에 따르는 합리적인 운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면서 새해의 화력탄수송에 떨쳐나선다.

《우리의 기적, 우리의 힘!》 신년의 리정표, 의지의 진군길이다. 화력탄을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부문에 필요한 물동수송, 200여km 구간의 용적메우실치공사, 수만m에 달하는 철길차갈과 수백의 철길정비를 더욱 짜고치고 철길상태에 따르는 합리적인 운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면서 새해의 화력탄수송에 떨쳐나선다.

《우리의 기적, 우리의 힘!》 신년의 리정표, 의지의 진군길이다. 화력탄을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부문에 필요한 물동수송, 200여km 구간의 용적메우실치공사, 수만m에 달하는 철길차갈과 수백의 철길정비를 더욱 짜고치고 철길상태에 따르는 합리적인 운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면서 새해의 화력탄수송에 떨쳐나선다.

# 아버이의 축복속에 온 나라에 따뜻한 정이 흐르고 행복 넘친다

##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 고맙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 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고 새해를 맞는 원아들을 따뜻이 축복해주신 혁명활동보도소식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 아버지원수님! 고맙습니다.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눈부신 창가마다 높이 울려 퍼졌던 원아들의 기쁨넘친 목소리가 이 강산에 끝없이 메아리쳐서 새해를 맞는 천만군민의 심장을 격정적으로 설레이게 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혁명의 전도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어떻게 키우는가에 달려 있다》**

마치도 이때의 설날은 평양 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을 위한 명절인듯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뜻깊은

### 평양 육아원, 애육원을 찾아서

설날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다녀가신 이후 이곳으로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길 줄 모르고 있다.

중앙과 수도의 일꾼들이 저마다 찾아와 축복받은 원아들과 기쁨을 함께 하고 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원아들은 설새없이 이야기한다. 아버지원수님께서 나의 손을 꼭 잡아주셨다고, 내 볼을 다정히 쓸어주셔서 새해에 복 많이 받고 몸도 마음도 튼튼히 무럭무럭 자라나라고 축복해주셨다고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한다.

우리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고운 옷을 입고 원수님 앞에서 노래 부르며 남모르는 꿈이야기도 기쁨속에 들려주었고 원수님 사랑속에 물고기, 고기, 사랑, 파자, 빵, 사과, 복숭아, 꿀을 먹는 자랑도 들려주었다고 신바람이 나서 이야기하는 원아들,

저저마다 달려와 원수님의 품을 파고들며 **《아버지원수님!》**, **《원수님!》** 하고 목메어 웨치던 원아들...

아이들의 눈물은 거짓도 가식도 모른다.

이들의 천진장식들을 품어안고 추운새와 더운새를 따뜻이 보살펴주며 이 세상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품이 얼마나 따사롭고 자애로운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이날 우리 원수님께서 원아들에게 이런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설을 함께 쇠니 얼마나 좋은가고, 힘들어도 보람 있는 길을 걸어왔다는 자부심이 생긴다고, 이 애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 조국의 밝은 앞날에 대해 더 확신하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온 나라 일을 돌보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새해의 첫 아침 몸소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을 찾으시고 천만부모도 줄수 없는 대대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은 그대로 원아들만이

설을 어떻게 쇠는가를 친아버지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식탁 마다 맛있고 영양가 높은 특색 있는 음식들을 풍성하게 차려놓은 것을 보니 원아들을 위해 설 준비를 성의껏 한 것이 일련되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고 당의 뜻대로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맞게 영양관리를 위생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하게 대우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이날 우리 원수님께서 원아들에게 이런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설을 함께 쇠니 얼마나 좋은가고, 힘들어도 보람 있는 길을 걸어왔다는 자부심이 생긴다고, 이 애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 조국의 밝은 앞날에 대해 더 확신하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온 나라 일을 돌보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새해의 첫 아침 몸소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을 찾으시고 천만부모도 줄수 없는 대대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은 그대로 원아들만이

아이 이 땅의 자라나는 새 세대들과 보다 위장한관할 미래를 위해 새해의 진군길에 용기백배, 신심도들이 펼쳐나선 천만군민에게 보내시는 태양의 따뜻한 축복인것이다.

울긋불긋 색동옷을 차려입고 행복에 겨워하는 원아들속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그대로 태양의 모습이고 원아들은 그 태양의 빛바람을 받아 활짝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송이들이다.

태양의 빛바람이 눈부신 이 땅우에는 온갖 백화가 만발하니 우리의 앞길은 그 얼마나 창창하며 우리의 미래는 그 얼마나 아름답고 환호적이었는가.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 아이들의 광명한 웃음소리가 저 하늘까지 울려 퍼지는 새해의 이 아침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보다 밝고 창창할 래일을 확신하며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담아 삼가 목메어 이야기한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최 수 북

## 백두산상공에 비낀 채색구름

희망찬 새해 주제 104 (2015)년 1월 1일 아침 혁명의 성산 백두산상공에 아름답고 황홀한 채색구름이 비었다.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원들이 관측한데 의하면 새해의 첫 아침 백두산의 기온은 영하 3 1℃이고 남서풍은 초속 2 5m였다. 백두산의 상공은 맑게 개어있었다.

오전 8시 15분부터 25분사이 장군봉, 함도봉에서 마치 보이는 천룡호를 향해 파도에 구름이 생기면서 점차 평평한 무지개색깔을 띠기 시작하였다.

백두산에서는 특이하게 나타나는 대기광학현상인

채색구름이었다. 채색구름은 반원형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가지는 무지개와는 달리 개개의 구름덩어리의 색이 무지개보다 더 선명한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 대장 류재남, 연구사 신철호동무들의 말에 의하면 이날 백두산의 바람은 맑고따뜻했다

이들은 이날 스키를 타고 천지호반과 봉우리들을 주류점이며 종합적인 관측을 진행하던 과정에 채색구름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천지호반과 봉우리들을 둘러싼 구름이 점차 희박해져서 천지호반과 봉우리들 사이로 푸른색의 물결이 보이기 시작했다.

천지호반이런듯 정적의 격격, 감격, 희백색의 우아한 색조와 대조되어 백두봉들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현지에서 채색구름을 본 류재남, 신철호동무들은 희망찬 새해를 맞는 우리 인민의 밝은 앞날을 축복하는 백두산의 신비경을 보여 반성을 터지였다.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원들은 그 신비경을 목격하면서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펼쳐나서자!》**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산천지탐험에서 더 높은 연구성과를 이룩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특파기자 전 철 주

## 해주시 룡당 2동 전성로병 김경문로인의 가정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들과 공로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적극 내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정치이며 우리 사회의 고상한 기풍입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아 왔다.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들에게 보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접한 해주시 룡당 2동 전성로병 김경문로인의 가슴은 한없는 격정에 휩싸여 있었다.

당장이라도 전하의 군부차투으로 새해의 진군길에 성를 나서고있는 심정을 누르지 못하고있는데 문득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웃인민에게 살고있는 조철만동무와 가족들이었다. 조철만동무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로병동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들으셨지요!》

그 기쁨, 그 감격을 전성로병인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나누고 싶어 찾아왔다고 하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비껴있었다.

김경문로인의 가슴은 몽골을 찾아왔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뜻깊은 날을 맞으며 또다시 많은 원호를 받으며 마려 하여 초소의 군인들에게 보내준 조철만동무의 가정은 온 마을에 원군가정의 노닐리 내려졌다.

조철만동무는 지난 기간 국가 정명결과 기념일, 생일 때마다 잊지 않고 전성로병인 김경문로인의 집을 찾곤 하였다.

자기 아버지도 전성로병이었다고 하면서 생활에서 불편을

느꼈거나 마음에 쓰는 조철만동무의 모습이 이날따라 천사식의 모습으로 정겨워졌다.

그날 조철만동무는 머지않아 인민군대에 입대하게 될 아들 국철이를 로병부부앞에 내세웠다.

김경문로인은 국철이에게 원군사업을 즐기게 하여 온 아버지의 마음을 언제나 잊지 말고 혁명의 총대를 굳건히 틀어잡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앞장에서 경사용위해야 한다고 뜨겁게 당부하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목숨바쳐 지킨 조국을 대를 이어 굳건히 지키는 총대병사가 되겠습니다.》

이들의 담탄 결의를 듣는 조철만동무의 얼굴에도 대견한 눈빛이 그늘 바라보는 김경문로인의 눈가에도 기쁨이 한껏 비껴있었다. 참으로 도덕의리심이 깊은 조철만동무와 그의 가족들이었다.

특파기자 리 승 철



## 함께 보낸 양력설

### 량강도의 일꾼들과 백두산밀영 혁명전적지관리소 강사들

천고의 밀영의 고요를 깨치며 소연한 소백수의 물소리가 울려 퍼진다. 하얀 물결이 몽게몽게 피어오르는 소백수물길위에 아침햇살이 눈부시게 비쳐온다.

정일봉기슭에 자리잡은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관리소 강사들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강사들인 김은정, 변은경동무들은 무엇이라 이룰할수 없는 환희에 휩싸여 있다. 그들은 방금 소백산마루에 비친 원형무지개를 보았던것이다.

며칠째 눈보라가 울부짖고 모든것을 얼어버릴듯 계속되는 20℃의 강추위가 계속되었다.

그러하던 찰나 새해를 맞으며 정일봉에서 마주 보이는 소백산마루에 선기한 자연현상이 관측되었다. 원형무지개가 아름답게 비친것이다. 그 광경은 할일의 옛 친구인 천고의 밀영에서 새해의 첫아침을 맞는 강사들의 기쁨을 배가해주었다.

새해를 맞아 기쁨에 넘쳐있던 그들은 문득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평평 쏟아지는 눈발을 헤치며 걸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손으로 헤가릴바람이 통마바위아래쪽을 살펴보았다.

(누구들인가?) 얼마후에 강사들은 환성을 울리며 달려박질쳤다.

그들은 도당위원회 책임일꾼을 비롯한 량강도와 삼지연군의 일꾼들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량강도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가 많은 영광스러운 도입니다.》

새해를 맞는 도의 책임일꾼들의 생각이 뒤흔들려 갔어졌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에게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펼쳐나서자!》**는 전투적인 구호를 제시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새겨안으시며 그들의 마음은 백두의 혁명정신이 새겨나서 내내 백두산지주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로 달려갔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어느해 3월 백두산지주 혁명전적지를 현지지도하시면서 혁명전적지강사, 관리원들은 깊은 수림속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 동무들이네 그들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없다고 하시며 끝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일꾼들의 눈에 어려웠다.

《백두의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지켜가고있는 강사동무들을 찾아갑시다!》

이리하여 도와 군의 책임일꾼들은 성의껏 준비한 물자들을 가지고 눈덮인 민길을 헤쳐온것이다.

이날 책임일꾼들은 새해를 맞는 강사들을 축하해주고 뜨겁게 교무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갈바람정신으로 삼바루정령에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었습니다. 우리모두 백두의 혁명정신, 혁명사적지를 지켜가고있는 당사상전선의 초병들에게 온 나라에 혁명전통교양의 열풍을 더욱 세지게 일으키는데서 많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갑시다.》

강사들의 가슴은 성스러운 혁명초소를 지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갈바람정신을 더욱 깊이 심어줄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특파기자

## 명절봉사로 흥성인다

### 압록강고기상점에서는

고기상점건설과 관련한 협의회를 여러차례 진행하고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압록강종합상점 지배인 안전해동무를 비롯한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봉무정신을 지니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현대적인 상점을 일떠세우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였다. 상점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하여 많은 건설자재와 마감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상점을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일떠세우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고기상점을 일떠세우는 상점일꾼들과 종업원들을 적극 고무해주고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다.

이런 줄기찬 투쟁에 의해 2층으로 된 현대적인 압록강고기상점이 번듯하게 일떠서고

지난해 12월말부터 문을 열고 봉사자를 시작하였다.

새로 일떠세운 압록강고기상점은 도안의 패지공장, 닭공장을 비롯한 축산기지들에서 생산한 고기와 알 그리고 그 가공품과 수산물기지에서 마련한 질좋은 수산물을 봉사해 주고있다.

상점의 2층에는 식당을 비롯한 봉사시설과 탁자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들이 꾸려진것으로 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 줄 모르고 있다.

뜻깊은 올해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면적인 원아들에게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도에서는 이력봉사자들이 사업봉사활동을 더 잘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큰 기쁨을 주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있고있다.

상점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당의 인민사랑이 시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새해 첫날부터 사업봉사활동에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송 장 윤



새해를 맞이한 인민들이 희망과 광만에 넘쳐 양력설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

당의 사랑과 은정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송마구락부, 여기서 늙은이는 청춘을 되찾고 청년들과 아이들은 슬기와 용맹을 키운다.

이들의 가슴속에는 장수힘을 키워 내 조국을 철옹성같이 지켜갈 마음뿐이다. 어느날도 그러해가 아니다. 행복찬 오늘도 좋지만 희망찬 래일을 마음가는 이들의 앞날은 더 밝고 창창할것이다.

여기 밀림송마구락부에도 인민들의 기쁨에 넘친 모습이 펼쳐졌다.

당의 사랑과 은정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송마구락부, 여기서 늙은이는 청춘을 되찾고 청년들과 아이들은 슬기와 용맹을 키운다.

이들의 가슴속에는 장수힘을 키워 내 조국을 철옹성같이 지켜갈 마음뿐이다. 어느날도 그러해가 아니다. 행복찬 오늘도 좋지만 희망찬 래일을 마음가는 이들의 앞날은 더 밝고 창창할것이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전 성 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신흥관은 근로자들에 대한 봉사를 잘하는것이 기본입니다.》

희망찬 새해 양력설을 맞으며 함흥시의 신흥관에 흥성거리고 있다.

백두산설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손길아래 현대적인 봉사기지로 훌륭히 꾸려진 신흥관은 오늘 함흥시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생활향상과 문화정서생활에 크게 이바지고있다.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당의 사랑과 은정이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게 하기 위하여 온갖 힘과 지혜를 다 바치고 있다.

최화숙, 로정희동무를 비롯한 일꾼들은 종업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집체적협력을 거듭하였다.

봉사부원 심숙동무를 비롯한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명절기간에 여러가지 요리와 음식들을 성의껏 준비하여 시안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에게

## 살들하게 맞아 기쁨속에 바래우며

### 신 흥 관 에 서

봉사하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농마구수, 감자빵을 비롯한 여러가지 감자음식들과 물고기요리를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하여 국수 1, 2작업반의 리영실, 윤미희, 송명화동무를 비롯한 로리사들은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은 농마구수의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하여 작업반별정

돈들을 친절하게 맞이하며 식사실마다에 따뜻한 정이 넘치게 하고 있다. 찾아오는 손님들을 친부모, 친형제들처럼 살들하게 대해주며 식사를 하고 신흥관을 나서는 손님들에게는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하고 친절하게 배려하는 그들의 밝은 모습이 사람들의 가슴을 후뭏게 해주었다.

신흥관에서는 손님들에게는 식사실마다에 따뜻한 정이 넘치게 하고 있다. 찾아오는 손님들을 친부모, 친형제들처럼 살들하게 대해주며 식사를 하고 신흥관을 나서는 손님들에게는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하고 친절하게 배려하는 그들의 밝은 모습이 사람들의 가슴을 후뭏게 해주었다.

특파기자 박 동 석

양력설을 맞으며 신흥관에 찾아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있는 함흥시안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이처럼 훌륭한 사랑의 국수집을 마련해준 어머니들이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사회주의 건설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박 동 석

신흥관에서는 손님들에게는 식사실마다에 따뜻한 정이 넘치게 하고 있다. 찾아오는 손님들을 친부모, 친형제들처럼 살들하게 대해주며 식사를 하고 신흥관을 나서는 손님들에게는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하고 친절하게 배려하는 그들의 밝은 모습이 사람들의 가슴을 후뭏게 해주었다.

특파기자 박 동 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신흥관은 근로자들에 대한 봉사를 잘하는것이 기본입니다.》

희망찬 새해 양력설을 맞으며 함흥시의 신흥관에 흥성거리고 있다.

백두산설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손길아래 현대적인 봉사기지로 훌륭히 꾸려진 신흥관은 오늘 함흥시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생활향상과 문화정서생활에 크게 이바지고있다.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당의 사랑과 은정이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게 하기 위하여 온갖 힘과 지혜를 다 바치고 있다.

최화숙, 로정희동무를 비롯한 일꾼들은 종업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집체적협력을 거듭하였다.

봉사부원 심숙동무를 비롯한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명절기간에 여러가지 요리와 음식들을 성의껏 준비하여 시안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에게

살들하게 맞아 기쁨속에 바래우며

신흥관에

다들하고

기쁨속에

바래우며

새해 첫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 4일 9시 30분부터 대성산 체육단, 장산체육단, 해봉체육단, 평양철도국체육단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는 짧은수로속도빙상 강자경기가 빙상관에서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